

# 嘉藍 李秉岐 소장 도서목록 『書目』 연구\*

이 민 희\*\*

- I. 들어가며
- II. 『서목』 개관
- III. 가람 소장 도서의 실제
- IV. 『서목』을 통해 본 가람 소장 도서의 의의
  - 1. 가람 소장 도서의 문학적 의의
  - 2. 『서목』과 『일사가람문고 고서저자목록』의 서지학적 의의
- V. 나오며

## 국문초록

초기 국학자 가람 이병기는 인문학과 서지학, 문헌학을 접목해 국학 연구의 초석을 다진 장본인이다. 그가 평생 수집하고, 국학 연구 자료로 삼았던 고서를 말년에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 가람 소장 도서목록 『서목』(1963)에 총 1,441종의 서적이 기재되어 있다. 『서목』은 특히 책의 이본 유형(필사본, 목판본, 활자본)에 관한 내용이 자세할 뿐 아니라, 간행연대 및 저자, 또는 특이한 서지학적 정보까지 풍부히 담고 있다. 또한 여느 도서목록 체계와 달리, ‘귀중본서목-희귀본서목-보통목서목(경사자집부)-잡서탐본

\* 2017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520170301)

\*\*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wallenrod@kangwon.ac.kr

류부-중화민국 고서적부-양장책부-고대잡지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는 가람의 관심사와 학문 세계가 그만큼 폭넓고 다양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목』 서적을 주제별, 간행시기별, 판본별로 나눠 가람 소장 서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귀중본과 희귀본 서목에는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에 간행된 목판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임란 이후에 나타난 서책들은 대체로 '보통본서목'과 '잡서탐본류부'에 편성되어 있으며, 20세기 초 이후 서적들은 '중화민국 고서적부', '양장책부', 그리고 '고대잡지부'에 포함되어 있다. 판본별로는 印本이 가람 소장본 전체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가람 소장본 도서목록인 『서목』의 종수(1,441종)와 가람 기증본 도서목록인 『일사가람문고 고서저자목록』(서울대 중앙도서관) 종수(693종)가 차이가 난다. 이는 『서목』 수록 서적 중 20세기 초 서적들을 제외한 채 서울대 도서관 장서목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람 소장본의 실체와 가람의 학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도서관 가람문고 도서목록보다 『서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목』은 가람의 학문 세계로 들어가는 첩경이자 가람을 국문학자요 서지학자로 재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또한 『서목』은 가람 소장 도서를 매개로 한 한국학 연구의 寶庫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書目』, 嘉藍 李秉岐, 서지학자, 귀중본서목, 희귀본서목

## I. 머리말

흔히 書籍目錄의 줄임말인 ‘書目’은 어떤 기준에 따라 많은 도서를 모아 기술하고 편집한 것을 말한다. 서목은 지식의 분류 체계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장자의 지식을 구조화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개인이 소장한 장서의 성격과 특성을 살피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유용하다.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평생 고서 수집과 고서 연구에 평생을 바쳤던 嘉藍 李秉岐(1891~1968). 가람이 소장했던 도서를 목록화한 『書目』은 가람이 생전에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소장했던 고서들의 목록을 작성한 책을 말한다. 이 『서목』이야말로 가람의 학문적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간접 자료일 뿐 아니라, 가람의 학문적 편력과 지식 구조의 근간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서목』은 가람이 얼마나 고서와 서지 사학을 중요시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물론, 그 자체로 가람이 평생 수행해 온 학문적 토대와 지식 축적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서지학적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가람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서목』 연구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가람은 평생 고서를 수집하고 탐구, 고증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는 고서 구입에 열의가 있었고, 고서를 상당수 구한 뒤 직접 고서를 읽고 문헌사적 의의와 작품의 의미를 考究하고자 했다. 따라서 가람 『서목』의 편성내용과 분류 체계를 보면 가람이 소장했던 도서의 성격은 물론 가람의 독서 및 고서 연구 편력과 학문 세계까지 엿볼 수 있다.

둘째, 가람은 수업시간에 서지학, 문헌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학 연구의 기초가 실증적 서지학에 있음을 누차 밝혔다. 가람은 한국서지학회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서지학 발달을 위해 몸소 실천하고자 했다.<sup>1)</sup> 가람이

1) 서지학연구를 목적으로 창립된 학술단체인 한국서지학회는 1947년 8월 李秉岐, 洪淳

서지학 연구와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서목』 기재 가람 고서들의 면면을 살펴봄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셋째, 가람이 백철과 함께 쓴 『국문학전사』는 실은 가람의 서지학적 안목과 고서 연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놓은 결정체이다.<sup>2)</sup> 『서목』을 통해 문헌학적 접근에 기초한 문학사 서술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최근 시조 시인뿐 아니라, 국학자, 교육자, 한글학자, 문학사가, 고전문학 연구자, 서지학자 등 다방면으로 가람을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up>3)</sup> 『가람 이병기 전집』 완간도 목전에 두고 있다.<sup>4)</sup> 전집 간행도 이루어지

---

懋, 朴奉石, 金九經, 李在旭, 宋錫夏 등이 중심이 되어 발족했다. 1968년에 ‘한국서지학회’로 명칭을 바꿨다가 1970년 5월에 다시 ‘한국서지학회’로 바뀌었다. 그 후 2013년에 기존에 있던 또 다른 학회인 ‘서지학회’와 통합해 현재 ‘한국서지학회’라는 명칭 하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 이민희, 「가람 이병기와 서지학」, 『애산학보』 40, 애산학회, 2014, 215~262쪽.
- 3) 이민희,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 연구」, 『한국학연구』 3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193~227쪽.  
최원식, 「고전비평의 탄생: 가람 이병기의 문학사적, 지성사적 위치」, 『민족문학사연구』 49, 민족문학사학회, 66~81쪽.  
윤석민, 「가람 이병기의 어문 운동과 어문 연구」, 『애산학보』 40, 애산학회, 173~214쪽.  
남정희, 「가람 이병기의 여성문학과 여성관」, 『우리문학연구』 45, 우리문학회, 2015, 35~64쪽.  
이경애, 「가람 이병기의 판소리 문학 연구」, 『판소리연구』 40, 판소리학회, 2015, 73~113쪽.  
조은별, 「가람 이병기의 신재효 연구와 신재효 위상의 확립」, 『한민족문화연구』 60, 한민족문화학회, 2017, 193~221쪽.  
이민희, 「교육자로서의 가람 이병기에 관한 종합적 고찰」, 『열상고전연구』 55, 열상고전연구회, 2017, 99~138쪽 등.  
가람은 시조뿐 아니라, 국어학과 고전문학, 서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질적, 양적으로 아직 부족한 상태다. 더욱이 서지학, 문헌학 관련 논의는 더더욱 미흡한 상태다. 평소 가람은 학문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서지라고 누차 강조했거니와 국문학자로서 가람의 탁월한 식견은 이러한 서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발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가람 소장 도서를 중심으로 가람의 학문적 근간을 추적하는 작업은 본고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 4) 이경애,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을 위한 자료정리 및 가람학 정립의 방향 연구」, 『국어문학』 64, 국어문학회, 2017, 243~279쪽.

는 시점에서 정작 가람 소장 도서를 통한 가람 학문 체계와 그 지식의 근간을 살피는 논의는 아직까지 전무했다.

본 연구는 바로 가람의 학문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 분석에 해당한다. 이하에서 『서목』 내용을 통해 가람 학문 형성의 지적 토대를 가늠해 볼 뿐더러 서지학적 의의가 무엇이었는지를 개관하고, 그 의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서목』 연구는 비단 가람의 서지학 연구뿐 아니라 초기 국문학 연구 자료 활용 가능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다 할 것이다.

## II. 『서목』 개관

『서목』은 가람이 죽기 2년 전인 1963년에 제작되었다. 『서목』 마지막 부분에 「후기」가 있어 그 제작 경위를 알 수 있다.

얼마 전에 가람 스승님의 부르심을 받고 급히 桂洞으로 달려갔더니 스승님이 一生을 두고 간직하신 約 五千餘 卷의 書目을 作成해 보라는 말씀이었다. 目錄 作成이 처음인 우리로서는 큰 失手나 없을까 하고 躊躇되는 바 없지도 안 했으나 스승님의 말씀이요 또한 分別하기 힘든 점은 각 分野의 權威者에게 問議하면서 作成한다면 되리라는 生覺으로 始作하기로 했다.

막상 着手해 놓고 보니 高麗 李朝時代의 貴重한 古文獻을 일일이 識別하기란 門外漢이나 다름없는 우리에게 普通 일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學界의 諸 先輩님이나 古書籍 取扱에 經驗이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作成했지만 어찌 圓滿이 되었다 自負할 수 있으랴.

구지 書目 編輯者들에게 辨明의 機會를 주신다면 場所가 狹窄했고 時日이 促迫함과 더불어 四, 五人의 混亂한 筆記로 書目作成에 큰 隘路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諒解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亂筆을 거두는 바이다. 西紀 一九六三年 四月 日

서목 편집자 일동 명의로 작성된 「후기」에 의하면, 『서목』은 가람의 요구로 5~6명의 제자들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참여자들이 누구였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도 가람의 전복대 제자였던 최승범 선생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63년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가람이 제자들에게 『서목』 작성을 의뢰하게 된 사정을 밝혀 놓았다.

스물두 살 때부터 책을 모으기 시작하였던 가람 옹은六年 전 한글날 기념식에서 돌아오다가 뇌일혈로 쓰러져 그간 病苦에 시달려 왔으나 최근에는 비교적 건강한 편으로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제자들에게 藏書目錄 作成을 의뢰하였으며 한 때 자신이 교편을 잡았던 서울대학교中央圖書館에 일괄하여 기증키로 29일 결단을 내린 것이다.<sup>5)</sup>

위 기사를 보면, 『서목』이 1963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에 걸쳐 제자들이 제작했고, 가람 소장본 전체를 서울대에 기증한 사실까지 확인 가능하다. 서울대 기증도서 목록은 3년 후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만든 『일사가람문고 고서저자목록』(이하 ‘가람문고 목록’으로 약칭))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기증 전 가람 소장본 목록인 『서목』과 기증 후 기증본 목록인 『가람문고 목록』을 비교하는 것이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먼저 『서목』부터 보기로 하자. 앞서 『서목』 「후기」에서 가람이 소장한 책이 약 5천여 권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서목』에 기재된 고서 수는 총 1,441종이고, 책 수는 4,146책이다.<sup>6)</sup> 번호가 부여된 별개의 책명을 기준으로 할 때 1,441종이며, 종별 책 수를 모두 합한 것이 4,146책이다. 약 5천

5) 『동아일보』 1963년 5월 31일자 5면.

6) 『서목』에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일련번호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여되어 있지 않다. 1~780번, 1~368번, 1~167번, 이렇게 3차례 일련번호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들 번호만 합하면 1315종이다. 그러나 실제 기록한 종수는 1,441종이다. 그리고 각 종마다 책 수를 적어 놓았는데 이를 합하면 총 4,146책이다.

여 권이라 한 것은 종수가 아닌 책 수를 합한 숫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A4 크기에 전체 44쪽 분량으로 제작된 이 책은 현재 고려대, 연세대, 원광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손으로 쓴 帳簿式 형태의 단행본형 서목이다.

가람 『서목』에서 소장 고서를 소개하는 내용은 책명과 인쇄형태, 권호와 책 수 등이 주를 이룬다. 이때 서목의 배열은 ‘책명-인쇄형태-책 수-비고’ 순으로 되어 있다. 책의 인쇄 유형에 관한 항목이 자세한 바, 책명 다음에 목판본인지, 활자본인지, 필사본인지를 빠짐없이 제시해 놓았다. 또한 책 수까지 일일이 밝혀 놓았을 뿐 아니라, 비고란에는 간행연대 및 저자, 또는 특이한 점까지 명시해 놓았다.

이런 『서목』의 전반적 특징을 고려하면서 서목 체제를 일별해 보고자 한다. 편의상 주제별, 간행 시기별, 판본별로 나눠 살펴보기로 하자.

## 1. 주제별 분석

서목은 흔히 四部 분류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 안에 서는 자모순이나 연대순, 또는 저작자명이나 서명 순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가람의 『서목』은 이런 서목 체제 구성 체계와 사뭇 다르다. 대주제에 해당하는 귀중본 서목, 희귀본 서목, 사부[經史子集] 서목은 흔히 볼 수 있다지만, 그 밖에 잡서탐분류부와 중화민국고서적부, 양장책부, 고대잡지부는 특별한 주제 범주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拓本이라 부르는 榻本을 별도로 묶어 정리해 놓은 ‘雜書榻本類部’에는 탐본뿐 아니라 書帖, 碑文과 祭文류 등이 함께 묶여 있다. ‘중화민국 고서적부’는 中華民國 시기에 중국에서 간행한 고서적을 따로 모아 적시한 것이다. 중화민국은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망한 후 쑨원[孫文]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나라다.<sup>7)</sup> 따라서 ‘중화민국 고서적’이라면 20세기 초 신해혁

7) 국민정부가 패해 대만으로 물러나고, 공산당이 1949년에 북경을 수도로 中華人民共和國를 세울 때까지 존재했다.

명 이후 중국에서 간행된 서적을 의미한다. 唐本이 많은데, 대개 ‘匣’ 형태로 되어 있다. 원본이 당본이라면 희귀본 또는 귀중본 서목에 포함되었을 것이나, 대개는 당본을 저본으로 해 중화민국 시기에 다시 출판된 서적들을 따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중화민국 고서적부 고서가 7%가 넘는 것이 이채롭다. 가람이 평소 20세기 중국에서 간행된 서적에 관심이 많았을 뿐 아니라, 실제 독서로도 이어져 그의 지적 토대 형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해 봄직하다.

〈표 1〉 『서목』 주제별 종수 및 비율

주제	종수		비율(%)	
	고서적 서목	귀중본 서목 58	184	4.0
	희귀본 서목 126	8.7		
보통본 서목	經部 21	588	1.5	40.9
	史部 31		2.2	
	子部 399		27.7	
	集部 137		9.5	
雜書榻本類 部	46		3.2	
中華民國 古書籍部	101		7.0	
洋裝冊部	121		8.4	
古代雜紙部	401		27.8	
계	1,441		100	

‘洋裝冊部’는 말 그대로 서양식 책 제본 서적을 별도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비록 내용은 옛 것일지라도 이를 서양 책 형태로 간행한 것이라 20세기 초 이후에 제작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본과 중국 문학 책을 비롯해 세계문학전집 등 세계문학 관련 서적뿐 아니라, 국내 고서를 20세기 전반기에 출판사에서 활자본으로 간행한 것들이 많다.



한편, ‘古代雜紙部’는 ‘고대’라는 제목과 달리, 실제로는 『문장』, 『한글』, 『조선문단』, 『학등』, 『카토릭청년』 등 다수의 잡지와 각 대학별 간행 논문집, 독본, 자료집성, 근대시집, 국문학 관련 단행본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잡지, 논문집, 단행본서부터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에 출판된 각종 서책이 망라되어 있다.

이렇듯 주제별로 살펴 볼 때, 가람 소장본은 ‘경사자집부’에 해당하는 ‘보통본 서목’과 ‘고대잡지부’ 관련 서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간행 시기별 분석

가람 『서목』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귀중본 서목 편과 희귀본 서목 편을 별도로 편성한 데 있다. 이때 이 두 편의 편성 기준은 대개 간행(제작) 시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서목』 고서들의 간행 시기를 비정하거나 확정했을 때, 고려 후기부터 조선 전기 사이에 제작된 책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희소성이 높다. 『서목』에서는 이를 고려해 다른 편과 달리 유독 귀중본과 희귀본 서목 편의 ‘비고’란에 간행 시기를 자세히 밝혀 적고 있다. 그 예를 일부 들면 다음과 같다.

〈표 2〉 『서목』 비고란 내용

연번	책명	형태	책수	비고
1	楞嚴經	(고려)	一	本書는 고려 中期 板이다.
2	杜草堂詩		一	中宗 時代의 覆刻本이다. 外他 고려本敎藥附錄
3	十抄詩	木板	三	高麗人著書本
4	歷代世年歌	木板	一	太宗時代板
5	東國記	木板	一	權近 著
6	圃隱先生文	初刊本	一	鄭夢周 著

	集			
7	一善義烈圖	木板	一	附義狗圖有文
8	法苑珠林	木板	一	고려藏經板으로 世宗朝刊本
⋮	⋮	⋮	⋮	⋮

물론 귀중본서목 중에는 조선 후기에 제작된 책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秋史簡帖』, 『阮堂簡帖』, 『阮堂先生簡帖』 등 추사 김정희의 서찰을 묶은 簡帖類가 대부분이다. 고려시대에 목판으로 간행된 불경이나 조선 전기의 언해류 등이 대체로 귀중본에 포함되어 있다. 희귀본 서목에는 조선 전기 때 간행된 언해류 목판본과 조선 후기 때 제작된 필사본 시가집(시조집, 약부 등)과 야담집도 보인다. 거기에는 일부 목판본 문집과 역사서가 포함되어 있다.

간행 연대별로 놓고 볼 때,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에 간행된 목판본 다수는 귀중본과 희귀본 서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임란 이후에 나타난 서책들은 대체로 ‘보통본서목’과 ‘잡서탐본류부’에 편성되어 있고, 20세기 초 이후 서적들은 ‘중화민국 고서적부’, ‘양장책부’, 그리고 ‘고대잡지부’에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 3> 『서목』 간행연대별 종수 및 비율

연번	간행연대	서목	종수	비율
1	고려 말~ 임란 전(1592)	귀중본서목/ 희귀본서목	184종	12.8%
2	임란 후~ 개항(1876)	보통본서목(경사자집부) /잡서탐본류부	634종	44%
3	개항 후~ 1950년대	중화민국고서적부/ 양장책부/고대잡지부	623종	43.2%

### 3. 판본별 분석

판본에 대한 이해는 서지학의 기본이 된다. 가람 소장본 서적이 모두 서울 대 도서관에 기증되었는데, 가람 소장본의 가치를 평가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판본과 관련한 것이다.

가람의 藏書整理委員 金庠基, 南廣佑, 李京熙, 閔濟의 한 사람인 金東旭(延世大國文科教授) 씨는 가람文庫의 四千二百六 권에는 板本의인 가치가 있는 서적과 古典文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많으며 쉽사리 구할 수 없는 책과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책이 많은 만큼 “그것이 外國이나 또는 商人들의 손에 흘러 들어가지 않고 모두 國內 學校 도서관에 보존케 되어 학계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말하였다.<sup>8)</sup>

위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가람 소장본이 판본적인 가치가 있는 서적과 고전문학 면에서 가치가 있는 서적, 그리고 희귀하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서적들이 많아 소중한다고 했다. 이에 『서목』에 제시된 판본 사항을 알기 쉽게 하나의 표로 제시한 것이 아래 <표4>다.

<표 4> 『서목』 판본별 종수 및 비율

판본	고서적 서목		보통본서목				잡서 답본 류부	중화 민국 고서 적부	양장 책부	고대 잡지 부	종수 (계)	비율 (%)
	귀중 본	희귀 본	경부	사부	자부	집부						
필사본		70	1	5	147	20	14	2		2	261	18.11
목판본	30	33	19	4	91	24	1				202	14.01
목활자본		1	1		4	11					17	1.18

8) 『동아일보』, 1963년 5월 31일자 5면.

금속활자본	6	13		1	11	26					57	3.96
銅活字本	17	6			1						24	1.67
印本				20	121	45	2	88		397	673	46.70
石印本				1	1	3					5	0.35
프린트본		3			19	8				2	32	2.22
답본(서첩/간첩)	5						29	3			37	2.57
古版本					1						1	0.07
圖鑑					1						1	0.07
영인본					1						1	0.07
양장본					1			8	121		130	9.02
종수(계)	58	126	21	31	399	137	46	101	121	401	1441	
비율(%)	4.03	8.74	1.46	2.15	27.69	9.51	3.19	7.01	8.39	27.83		100

판본별로 나눠 본 결과, 印本이 가장 많았다.(46.78%) 이는 『서목』에 기록된 전체 소장본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흔히 印本이라면 필사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쇄본(목판본, 목활자본, 금속활자본, 석인본 등)을 의미하나, 『서목』에는 이들 판본을 모두 따로 구분하고 별도로 印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고서 형태가 아닌 신서 형태의 인쇄 단행본을 총칭한다.

『서목』에는 문학 서적이 많은 ‘자부’와 20세기 전반에 주로 印本으로 출판된 ‘중화민국 고서적부’와 ‘고대잡지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전반기 간행물들을 제외하면 그 이전 시기에 제작된 ‘고서적서목’과 ‘보통본서목’의 고서들은 주로 필사본과 목판본 형태의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고서적서목 중 귀중본서목 고서는 목판본과 동활자본이 주가 되는 반면, 희귀본서목 고서들은 필사본이 많은 것이 특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잡서답분류

부와 양장책부는 그 자체가 판본 형태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라 각각 탐본과 양장본 서적이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가람이 소장했던 서적 중에는 印本이 가장 많았지만, 제작 시기에 따라 필사본과 목판본, 양장본의 비중이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려 말 고서부터 20세기 중반에 출판된 신간 서적에 이르기까지 천 년의 서적을 망라해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람의 독서 편력이 넓고 어느 한 분야와 시기에 치우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하에서 실제 『서목』 체제에 입각해 분류된 가람 소장본의 면면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자.

### Ⅲ. 가람 소장 도서의 실제

#### 1. 귀중본서목 서적

『서목』 ‘귀중본 서목’에 소개된 책은 총 59종이다. 귀중본 서목에 소개된 고서 중 일부는 『동아일보』에 ‘象牙塔에 바친 善意, 藏書 喜捨한 李秉岐 博士를 찾아’라는 기사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다.

평생을 두고 모아 왔던 장서 四千二百六(4,206)권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키로 한 우리 국문학계의 중진 가람 이병기(71세) 옹은 30일 그가 아끼는 『南明集』과 『金剛般若波羅密經』 등을 뒤적거리며, 시내 계동 자택으로 찾아간 기자에게 그 감상을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에 기증키로 된 『가람문고』에는 이 년 간의 월급을 통틀어 샀다는 고려중기판인 『능엄경』을 비롯하여 中宗 시대의 覆刻本인 『杜草堂詩』, 『金剛般若波羅密經』 2, 3, 4, 5권, 『南明集』 등 귀중본 59권과 『杜詩諺解』(曹偉 譯本板)가 있는가 하면 日書와 최근 나온 서적 등도 포함되어 있다. (중략)

한편, 李秉岐 옹의 장서를 받게 되는 서울대학교 中央圖書館長 金桂淑 교수는 “一平生 國文學을 위해 애쓰신 가람의 귀중한 장서를 一括하여 기증 받

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장과 함께 사례를 드려야겠다.”고 말하였다.<sup>9)</sup>

서울대에 기증키로 한 장서가 전체 4,206권이라고 했다. 『서목』에 실린 1,441종과 숫자상 차이가 나는 것은 책의 종수가 아닌, 책 수를 일컫는 말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가람이 고서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22세의 청년 시절부터였다. 가람은 학문에 입문한 시절부터 직접 원전 서적을 구해 읽었다. 그렇게 한 평생 고서를 수집하며 연구에 매진했기 때문에 서지학과 문헌학에 식견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실제 귀중한 판본과 잘 알려지지 않은 다방면의 서적까지 두루 소장할 수 있었다.

‘귀중본서목’ 수록 고서마다 귀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일일이 다룰 수 없기에 위 신문 기사에 언급된 고서 중 몇 가지만 예로 들어 소개한다.

### 1) 『楞嚴經』

『서목』 내 ‘귀중본서목’ 중 첫 번째로 소개된 책이다. 그만큼 가람이 개인적으로 가장 소중히 여긴 책 중 하나였다 할 것이다. 이 『능엄경』을 구하기 위해 가람이 2년 치 월급을 털어 넣기까지 한 데서 그러한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능엄경』은 『원각경』과 『금강경』, 그리고 『대승기신론』과 더불어 국내 불교 講院에서 가르치는 4대 불경 중 하나다. 현전 판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235년(고종 22)에 李勝光 등이 간행한 것인데, 해인사에 그 목판이 전한다. 가람 소장 판본도 이 무렵 간행된 것이다. 『능엄경』 자체가 원래 인도에서 외부 유출을 금했던 불경인 데다 고려중기 판본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가람 소장본의 가치가 더 높다 할 것이다.

### 2) 『杜草堂詩』

두보의 칠언시를 언해한 시선집이다. 두보 시를 좋아했던 조선 시대 문인

---

9) 『동아일보』, 1963년 5월 31일자.

들은 성종 대에 간행된 『分類杜工部詩諺解』를 비롯해 두보 시를 언해해 거듭 간행했는데<sup>10)</sup> 가람 소장 『두초당시』는 중종 시대의 覆刻本으로 조선 중기와 후기에 계속 수요가 컸던 두보 시 언해본의 초기 판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귀중본 서목’에는 『두초당시』 외에도 『分類杜工部詩』, 이태백의 시를 보주한 『分類補註李太白詩』 등이 있다. 또한 『圓覺經諺解十二楞嚴經諺解』, 『翻譯小學』(卷九), 『正俗諺解』, 『譯語類解』,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 등 『두초당시』 같은 언해서도 적지 않다. 언해서는 귀중본서목이 아닌 희귀본서목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두시언해』(曹偉 譯), 『論語栗谷先生諺解』(三鑄 甲寅字本), 『家禮諺解』(목판본), 『語錄解』(목판본), 『諺解痘瘡集要』(목판본), 『續明義錄諺解』(동활자본), 『百聯抄解』(목판본), 명종 때 印刊한 『通鑑諺解』(甲寅 活字本) 등이 그러하다. ‘보통목서목’ 중 ‘經部’와 ‘子部’ 편에서도 언해서는 다수 보인다.

### 3) 『十草詩』

중국 시인 26명과 신라 시인 30명의 한시를 10편씩 뽑아 편찬한 詩選集이다. 누가 편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규보 이전 시대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만큼 오래 전 시선집이라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현전 텍스트는 『십초시』에 주석을 붙인 『협주명현십초시』 重刊本이 最古인데, 1337년(충숙왕 6)에 安東府에서 간행한 판본을 權擘이 교정하여 1452년(단종 1)에 중간한 것이다. 『서목』에 ‘고려인 저서 본’이라는 附記가 있는데, 이는 안동에 살던 權思復이 進士 시절에 베낀 것을 의미한다. 1337년 이전에 이미 『십초시』가 편찬되고 협주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4) 『金剛般若波羅密經』

대승불교의 근본을 이루는 ‘금강경’의 내용을 여러 형태로 제작한 경전이

10) 이민희, 「언해자료 <杜律分類>와 <杜草堂詩>에 대한 고찰」, 『규장각』 2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19~31쪽.

다. 고려 시대에 제작된 목판본과 조선 전기의 활자본 등 다수가 전한다. 현재 다수의 이본이 보물 제696호, 제721호, 제772호, 제773호, 제877호, 제974호, 제108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가람 소장본은 보물 제773호로 단종 3년에 동활자를 이용해 만든 『금강경삼가해』(국역본)이다. 현재 제1권을 제외하고 2~5권만 있는 낙질본이다. 『금강경』에 대한 주석서인 『금강경오가해』 중에서 당나라의 고승인 宗密과 宗鏡, 그리고 조선의 고승인 己和, 이렇게 3인의 주석을 가려 뽑아서 이를 正文 다음에 수록한 『金剛經三家解』에 구결을 붙여 국역을 가한 것이다. 권말에 韓繼禧와 姜希孟의 발문이 붙어 있어 그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다. 세종의 명으로 시작해 문종과 세조, 세조비, 그리고 성종 대에 걸쳐 35년 동안 이루어진 국역 사업의 결과물이다. 한글 표기 형식이 혼용되어 있어 한글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卷首題 밑에 ‘觀音’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권3의 표지에는 ‘俗離山觀音寺留鎮’ 등의 墨書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속리산 관음사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5) 『南明集』(乾坤)

경상도의 巨儒였던 南明 曹植의 문집으로 여러 이본이 전한다. 제자였던 정인홍이 광해군 대에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자, 그 여파로 스승인 남명의 이 문집도 많은 수난을 겪었다. 초간본은 정인홍의 주도로 선조 35년(1602) 합천 해인사에서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별로 보급되지 못한 채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리하여 2년 후 갑진년(1604)에 초간본을 바탕으로 새로 갑진본이 간행되었다. 이 둘은 3권 2책의 분량이다. 그 후 여러 판본이 나타났는데, 갑진본을 저본으로 해 수정·보완한 甲辰本 계통과 인조반정 이후 갑진본 계통에 반영된 남명의 주요 문인 정인홍 및 광해군 시기 대북 정권의 자취를 일부로 삭제한 釐正本 계통, 그리고 이정본 계통 판본을 보다 철저히 개정한 重刊本 계통의 이본들이 전한다.<sup>11)</sup> 가람 소장 『남명집』은 갑진본 계통의 판본으로 『남명집』의 초기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귀중본에 포

11) 조식, 오이환 역, 『南冥先生文集』, 지만지, 2009.



함된 것이다.

## 2. 희귀본서목 서적

### 1) 『두시언해』 / 『飲中八儔歌』

당나라 시인인 杜甫의 시 전편을 내용에 따라 52부로 분류하여 우리말로 번역한 최초의 譯詩集이다. 원명은 ‘분류두공부시언해’다. 초간본은 세종(1443) 때 착수하여 38년 후인 성종12년(1481)에 활자본 전25권 형태로 간행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1~4권과 11~14권 등이 소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는다. 초간본은 승려 의침과 조 위, 유운겸 등이 참여했다. 가람 소장본 『두시언해』는 曹偉가 번역한 초간본에 해당한다. 그러나 활자본이 아닌 목판본인 것으로 보아 실제 판본은 중간본 이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간본은 인조 10년(1632)에 목판본 전25권을 지방에서 分刊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중간본은 초간본을 그대로 복각하지 않고 17세기 국어를 고스란히 반영해 제작된 까닭에 초간본과의 비교를 통해 국어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희귀본서목’ 중에는 두보 시선집으로 두보의 7언 古詩만을 모아 묶은 『飲中八儔歌』도 보인다. 당나라 대에 8명의 탈속적인 酒徒들, 예컨대, 賀知章·蘇晉·李白 등을 택해 이들의 평생의 醉態를 특징적으로 노래하고 각 인물의 인품을 간결하게 표현해 놓은 책이다. 이 중 ‘李白一斗詩百篇’이라는 시구가 특히 유명하다.

### 2) 『辟瘟新方』

1653년 봄에 황해도에 癘疫이 크게 유행하였을 때 왕명을 받아 御醫 안경창이 편찬한 癘疫 치료용 의학서다. 1권 1책의 목판본인 이 책은 기존의 온역 치료서인 『벽온방』에서 약재의 난해한 것은 빼고 민간 처방 중 쓰기 쉬운 것을 첨가하여 諺解를 붙여 간행했다. 그러나 허준의 『新纂辟瘟方』보다

는 설명이 적고 실제 실용 면에서도 다수 뒤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

### 3) 『閨坤儀則』

다소 생소한 이름의 이 책은 편저자 미상의 女訓書이다. 조선 후기 안동의 한 私家에서 집안 부녀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은 한글 필사본 책이다. ‘閨’은 房門을, ‘坤’은 문턱을 의미하는 바, ‘규곤의칙’은 곧 ‘방문 안의 거동과 법’을 뜻한다. 이것을 잘 배우고 행한다면 婦德에 합하고 가정 내의 주부 역할을 잘 할 것임을 강조한 여성 행실 규범서에 해당한다.

### 4) 다수의 고전문학 작품들

‘자부’ 편에 포함되어도 좋을 법한 ‘樂府’ 관련 필사본과 야담집 필사본 여러 편이 희귀목 서목에 포함되어 있다. 고전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다.

## 3. 보통본서목 서적

‘경사자집부’류의 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부’에는 유교 경서류 책이 대부분이다. 총 21편의 책이 경부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論詩絕句』(필사본)와 『논어(四)』(목활자본)를 제외하면 모두 목판본이다. ‘사부’에는 역사서가 주가 되는데, 『보한재집』(신숙주), 『양촌집』(권근), 『연암집』(박지원) 이렇게 세 편의 개인 문집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자부’에는 소설을 비롯한 각종 문학책과 역사서, 경서, 불경, 국어문법서, 농서에 이르기까지 잡다한 성격의 책이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그 주종은 역시 문학 책이다. ‘집부’에는 개인 문집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가요집성』, 『청구영언』 등 시가 모음집 내지 시선집에 해당하는 책들이 많이 보인다. 역시 몇 가지 책을 선별해 소개해 본다.

## 1) 『朝鮮賦』

‘사부’ 편에 분류되어 있는 이 책은 성종 19년(1488)에 명나라의 사신으로서 조선을 찾았던 董越이 조선 사행을 마친 뒤 조선의 산천과 풍속, 인정과 물정을 賦의 형식으로 기록한 조선 체험기(필사본 1권)다.<sup>12)</sup> 조선 전기에 행해졌던 전통연회의 모습뿐 아니라, 조선의 풍습과 문물, 지형, 환경 등 제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문학 작품이다.

## 2) 『瑤圖』

‘자부’ 편에 포함되어 있는, 1책 13장(1帖 12折 26面)의 필사본 지도책이다. 작자를 알 수 없지만, 1835~1859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도책의 구성을 보면 ‘1) 天下圖, 2) 中國圖, 3) 東國八道大總圖, 4) 京畿道, 5) 忠淸道, 6) 全羅道, 7) 慶尙道, 8) 咸鏡道, 9) 平安道, 10) 黃海道, 11) 江原道, 12) 日本國, 13) 琉球國’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동국팔도대총도’와 ‘강원도’ 지도 편에 于山을 울릉도 남쪽에 그려 넣은 것이 특징적이다. 조선 후기에 많이 보급되었던 일반적인 목판본 지도책을 필사하여 채색한 지도책으로 가람이 소장했던 이 책이 현전 유일본이다.

## 3) 『志喜廣載軸』

역시 ‘자부’ 편에 속해 있는데, 1795년(정조 19)에 정조가 수원 華城에 행차하여 혜경궁의 회갑을 위해 베푼 進饌 등에서 읊은 시를 모은 詩軸이다. 『서목』에는 ‘정조 21년에 간행한 ‘整理 銅活字本’라고 밝혀 놓았다. 여기서 ‘정리 동활자본’이란 1795년에 정조가 『整理儀軌』를 편찬할 때 주조한 30만자의 동활자를 의미한다.<sup>13)</sup> 이 동활자를 이용해 다음 해인 1796년(정조 20)

12) 董越 著, 윤호진 역, 『朝鮮賦』, 도서출판 까치, 1994.

13) 『정조실록』, 20년(1796) 12월 15일조. “을묘년(=정조 19년, 1795) 봄에 자전을 모시고 壽筵에서 돌아온 후 『整理儀軌』를 편찬하려고 印役을 설치하여 동으로 30만

에 『志喜廣載軸』을 인쇄했다.

#### 4) 『震覽』

국내외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유일본이다. 편·저자 모두 미상이나 19세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4)</sup> ‘震’은 ‘東國’, 곧 우리나라를 뜻하는 이칭인 바, ‘진람’은 ‘조선의 편람’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책의 내용을 보더라도 吏讀文의 용례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 및 관행, 전국 주요 고을의 연혁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 놓았다. 국내에 전하지 않는 『吏讀便覽』이란 책의 전체 내용을 포함해 다른 책의 일부분을 발췌, 요약, 초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두문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 5) 『浮談』

가람이 1949년에 『요로원야화기』를 번역, 출간할 때 가람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부담』에서 작품 3편을 발췌, 소개한 바 있다. 편찬자와 제작 시기는 알 수 없는 이 책은 ‘떠도는 말’이라는 뜻의 한글본 야담집으로 기존 한문본을 번역한 한글본을 다시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총 9편의 작품 중 2화와 7화는 제목이 없고, 나머지 7편은 제목이 붙어 있다. 문헌 중심의 패설과 달리 구비적 속성의 가치가 강화된 근대전환기 패설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패설집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sup>15)</sup> 1947년 『경향신문』 기사에서 이미 가람 소장본 『부담』의 의의를 언급한 바 있고, 1966년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가람이 한국전쟁 전에 『부담』을 비롯한 고전문학 작품집을 세상에 소개한

---

자를 주조하였는데, 이것을 整理字라고 한다. 먼저 『志喜廣載軸』과 전후의 廣載詩를 인쇄하고, 또 『御定奎章全韻』을 내려 보내어 인쇄한 후 그 판각을 보관하게 하였다. (乙卯春, 陪慈駕還自奉壽之筵, 將編整理儀軌, 以設印役, 鑄銅字三十萬, 謂之整理字. 先印志喜廣載軸及前後廣載之詩, 又下御定奎章全韻雕印, 藏其板.)”

14) 안병희, 「<진람> 해제」, 『서지학보』 25, 한국서지학회, 2001, 219~304쪽.

15) 정명기, 「<浮談>의 발견과 패설사적 의의」, 『열상고전연구』 38, 열상고전연구회, 2013, 169~202쪽.

사정을 다룬 바 있다. 그런데 정작 『부담』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은 2013년 이후의 일이다.<sup>16)</sup> 가람 『서목』에 소개된 작품집을 일찍 면밀히 검토했다라면 가람 소장본의 가치를 밝히는 작업도 훨씬 더 다채롭게 전개될 수 있었을 것이다.

### 6) 『사씨남정기』 등의 고전소설

‘자부’ 편에는 고전소설을 비롯한 문학류 책이 적지 않다. 여기에 고전소설은 이본을 망라해 총 67종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중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낯선 작품은 없다. 가람 소장 고전소설 책을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서목』 수록 고전소설 책 목록

번호	책명	형태	책수	번호	책명	형태	권수
1	謝氏南征記	寫本	一	35	금방울전	印	一
2	三韓拾遺	필사	一	36	금수전	印	一
3	彰善感義錄	필사	一	37	양풍운	印	一
4	花史	필사	二	38	劉忠烈傳	印	一
5	南征記	필사	一	39	洪吉童傳	印	一
6	九雲夢	필사	一	40	淑香傳	印	一
7	洪吉童傳	인쇄	一	41	박씨부인전	印	一
8	王郎返魂傳	인쇄	一	42	謝氏南征記	印刷	一
9	驚兎歌	寫本	一	43	정비전	印刷	一
10	金太子傳	寫本	四	44	廣寒樓記	印刷	一
11	玄氏兩雄錄	寫本	二	45	도옹전	印刷	一
12	장인걸전	寫本	一	46	쌍주기연	印刷	一
13	沈淸錄	寫本	一	47	숙영낭자전	印刷	一
14	김학스지생록	寫本	一	48	춘향전	印刷	一
15	장화홍련전	寫本	一	49	구운몽	印刷	一
16	三生錄	寫本	一	50	심청전	印刷	一

16) 위의 글, 상동.

17	창선감의록	寫本	一	51	홍부전	印本	一
18	金華寺記	寫本	一	52	백학선전	印本	一
19	朴氏傳	寫本	一	53	구운몽	印本	一
20	심청전	寫本	一	54	춘향전	印本	一
21	六美堂記	寫本	三	55	진대방전	印本	一
22	劉忠烈傳	寫本	二	56	홍길동전	印本	一
23	聖賢公崇烈記	寫本	一	57	趙雄傳	印本	一
24	九雲夢	寫本	二	58	도옹전	印本	一
25	고본춘향전	印	一	59	춘향전	印本	二
26	崔孤雲傳	印	一	60	쇼덕성전	印本	一
27	독집전	印	一	61	심청전	印本	一
28	장끼전	印	一	62	유충렬전	印本	一
29	春香傳	印	一	63	심청전	印本	一
30	鄭乙善傳	寫本	一	64	烈女春香守節歌	印本	一
31	彰善感義錄	寫本	一	65	뉴효공선행록	印本	六
32	朴夫人傳	寫本	一	66	토기전	寫本	一
33	春夢錄	印本	一	67	李春風傳	寫本	一
34	圖像獄中花	印本	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목』의 형태 항목 중에는 ‘印’, ‘印本’, ‘印刷’ 등으로 구분해 적은 것이 있는데, ‘印’과 ‘印刷’는 대개 딱지본 소설이라 불리던 활자본 소설을, ‘印本’은 주로 방각(목판본) 인쇄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한편, ‘자부’에는 야담집(패설집)과 시가집(악부, 시조집, 한시집, 악보 등), 그리고 중국 문학 책과 불교 서적, 각종 문집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귀중한 문학 서적들이다. 20세기 초 국학자였던 李能和가 『춘향전』을 한시로 풀이한 『春夢錄』도 새롭게 평가할 만한 작품이다. 그런가 하면 ‘자부’ 279번에 언급된 필자본 『采家瑣屑』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서울대 도서관 기증도서 목록에도 보이지 않는다. 유일본으로 보이는 데, 그 실체를 알 길이 없다.

7) 『廣藝舟雙楫』

‘집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 책은 중국의 康有爲가 廣智書局에서 간행한 책이다. 강유위는 청나라 말기, 여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이 가속화되던 시기에 양계초와 더불어 지식인들의 새로운 개혁사상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때 특별히 『광예주쌍읍』을 지어 정치적으로 실패한 개혁의 뜻을 서예 개혁을 통해 이루고자 했다.<sup>17)</sup> 젊은 시절, 가람이 梁啓超의 『飲水室文集』(1903)을 읽고 정신적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양계초와 같은 동시대 중국 개혁사상가였던 강유위의 영향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 책은 가람이 중국 근대 사상가의 書法미학 이론을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 밖에 ‘집부’에는 개인 문집과 문학류 서적이 다수 보인다. 비고란에는 다른 보통본 서목과 달리 작자명과 출판 관련 정보도 비교적 상세히 적어 놓았다.

<표 6> 『서목』 집부 ‘비고’ 항목 서술 내용

연번	책명	형태	책수	비고
630	學錄	寫本	九	王陽明을 두고 지은 原稿本 作者는 未詳이나 容內이 忠實함.
631	松穆館集	筆書體 木活字本	一	李彥瑱 著
632	尺牘藏畀集	寫本	一	內容은 山泉關係가 有해서 忠實하나 著者는 未詳이다.
633	李朝香奩詩	寫本	一	亦是 本書도 崔孤雲 關係가 有
634	蘭雪軒集	寫本	一	許筠之妹氏 著
635	東絕	寫本	五	本書는 古詩 蒐輯해서 著한 冊. 筆體가 絶妙하다.
636	恩杯詩集	整理寫	二	正租大王命 刊

17) 김영배, 『康有爲 <廣藝舟雙楫>의 書藝美學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동양미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2012.

637	夏園詩鈔	全史字	一	鄭之潤 著
638	栗谷年譜	寫本	一	鄭齊斗 著
639	孝憲公行狀記	寫本	一	鄭文斥 著
640	忠武公家乘	木版	二	李舜臣의 芬編
641	唐陵君遺事徵	印書体木活	一	洪純彦 著
642	靑丘詩鈔	丁酉活字	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시험으로 印出한 書冊이다.

작자 고증부터 작품의 성격과 그 내력까지 핵심 사항을 밝혀 놓았다. 『서목』을 통해 가람 고서의 전모와 함께 그의 독서량, 그리고 고서, 서지학, 문헌학에 관한 식견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 4. 잡서탑본류부 서적

##### 1) 『蘭閣清玩』

生筆로 쓴 서간첩이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난규청완』의 저자는 물론 제작 시기, 서간 내용 등 서간첩 전반에 관한 정보, 서지적 가치에 대해 모두 미상이다.<sup>18)</sup> 이렇듯 『서목』 수록 서적 중 현재까지 사장된 채 그 어떤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료들이 더러 보인다. 『서목』 수록 자료들에 관한 서지학적 조사가 일차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思美人曲帖』

1764년(영조 40)에 坯窩 金相肅(1717~1792)이 松江 鄭澈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漢譯한 것과 그 後記, 그리고 원 국문가사 등을 수록하여 한데 묶은 책이다. 『서목』에도 서예가인 김상숙이 썼음을 밝혀 놓았다.(가람古 811.05-J462sm)

18) 伍稼靑의 저서 『骨牌圖譜』(台灣: 漢苑出版社, 1975)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사실만 확인했다.



## 5. 중화민국 고서적부 서적

‘중화민국 고서적부’에 기록된 책들은 대부분이 唐本이며, 여러 匣의 분량을 자랑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 1) 『佩文韻府』

청나라의 康熙帝의 명으로 張玉書·陳廷散·李光地 등 76명의 문사들이 편집에 종사하여 1711년에 간행한 한시 용어집이다. 습유 편은 1716년에 완성되었는데, 전체 본문 106권, 拾遺 106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편찬 사업의 결과물이다. 2字에서부터 4자짜리 숙어의 용례를 經史子集의 고전에서 널리 채록하여 맨 아래 자의 운에 따라 106운으로 나누어 배열하고, 매 운자를 1권으로 묶었다. 약 45만의 수록 어휘를 자랑하는 이 책은 한시를 지을 때의 편의를 위해 제작되었지만, 어휘가 너무 많다 보니 도리어 찾기가 어렵다. 이에 1937년에 중국의 출판사인 商務印書館에서 색인을 붙여 영인하였다. 가람은 10갑 분량의 100권짜리 당본을 소장하고 있었다.

### 2) 기타

이 밖에 『좌전』(10갑 15권), 『사기평립』(16권), 『동과집』(16권), 『芥子園畫譜』(4갑 16권), 『增象全圖三國演義』(2갑 20권), 『본초강목』(8갑 48권), 『금병매』(2갑 20권), 『태평광기』(8갑 64권), 『淵鑑類函』(4갑 48권) 등 상당 분량의 당본 중국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서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일부 일본판도 보인다. 『왕양명전습록』(1갑 3권), 『일본사략』(1갑 31권), 『文章軌範纂評』(1갑 3권), 『新刻歐蘇手簡』(1갑 2권) 등이 그러하다.

## 6. 양장책부 서적

洋裝 서적 중에는 세계문학전집이 눈에 띈다. 일본에서 간행된 『세계문학

전집』(전56권), 『シェワスピヤ全集』(전40권), 『世界短篇小説大系』(전8권)를 비롯해 『현대일본문학전집』(전9권, 改造社), 『芥子園畫傳』(전13권, 東京, アトリエ社), 『세계명인전』(전3권), 『현대조선문학전집』(전5권) 등 전집 서적이 그러하다. 그 외에는 일본 출판사와 조선총독부, 국내 출판사 등에서 서양식 제본으로 출판된 다수의 단행본 서적들과 사진류 책 포함되어 있다. 가람 『서목』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람일기』를 보면 가람이 평소 세계문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나라의 명작을 즐겨 읽었음을 알 수 있다. 폴란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헨릭 센케비츠의 『어둠에 반짝이는 빛』을 번역한 사실 (1933년 5월 17일자)까지 확인할 수 있다.

<표 7> 세계문학 구입독서번역 관련 『가람일기』 내용

연번	일자	본문
1	1919.08.20.	겨우 고책사를 찾아 『盛京通志』 한 질을 샀다. 건륭 원년의 여러 문신이 만주 사적을 모아 지은 책인데, 2갑 20권이라. 만주 고적을 알려면 이만한 책이 없을 듯하다. 서양 각국 『名人言行錄』 한 권을 사 손에 부뚝하게 끼고 돌아왔다.
2	1921.02.26.	위고가 지은 『哀史』 보다.
3	1921.03.04.	佛國 위고가 지은 『장발장: 애사』를 다 보았다. 과연 세계적 걸작이라고 해서 부끄럽지 아니하다. 자세히 인정을 그려냈다. (하략)
4	1921.03.05.	『부활』을 읽고 영어를 익히다가 잠들었다.
5	1921.10.02.	唐詩와 이백 시집을 보았다.
6	1922.01.30.	『사기』 『열전』을 보았다.
7	1922.08.05.	톨스토이의 일기를 읽었다. 그는 철인생활, 문인생활을 했다. (하략)
8	1922.08.09.	『인류학』을 읽었다.
9	1922.08.19.	소크라테스의 『인물양성담』을 읽다.
10	1922.08.22.	『테세우스전』을 읽다.
11	1922.08.30.	『간디와 진리의 把持』란 책을 다 읽었다. 그 동안은 간디를 벗 삼아 매우 즐겁게 지냈다. (하략)

12	1922.12.12.	통신중학관 문제로 말미암아 『중국철학사』를 보다. 옛哲人을 앞장세우고 胡適의 뜻을 붙여 한 이야기다.
13	1923.06.12.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중동학교에 가서 에스페란토를 배우다.
14	1923.06.28.	崔益翰군이 찾아왔기에 더불어 한나절은 딴 세상을 찾으며 놀았다. 이백이나 두보의 세상도 찾아보고 장자나 칸트의 세상도 찾아보았다.
15	1923.09.07.	종일 방안에 들어 있어 ‘말모이’ 카드를 모으고 나쓰메 소오세키(夏日漱石)의 『文學論』도 읽어 보다.
16	1924.01.27.	진고개를 가서 여러 서점을 뒤져보고 『심리학』, 『논리학』, 『新美辭學』, 『의역화엄경』, 『의역능엄경』을 사왔다.
17	1923.11.01.	토오교오로 『文藝講座』를 주문했다.
18	1925.05.28.	<琵琶行>을 번역했다.
19	1925.06.02.	<長恨歌>를 번역하였다.
20	1927.08.27.	세계문학전집 찾으러 大阪屋을 갔었다. (중략) 세계문학전집 제5회 제6회치며 세계사상전집 제5회치를 가져오다.
21	1927.08.29.	나는 건넌방에서 모과상의 『여자의 일생』을 보고 있다가 한회를 가 달랬다.
22	1927.12.03.	대관옥에 가서 『세계사상전집』 6, 8과 『세계문학전집』 8,9 『서조팔십 역시집』을 찾아오다.
23	1927.12.03.	이화여자전문부 출연 버나드 쇼의 ‘성 잔다르크극’을 보다.
24	1927.12.03.	『부활』을 읽어보다.
25	1928.01.21.	바이런 시집 하나를 사다.
26	1930.09.10.	河敬德 군 집에 가서 영어를 또 배우기 시작하다.
27	1930.10.27.	『세계풍속대계』 3책을 周文堂에서 찾아오다.
28	1931.12.25.	나는 몇몇 책사를 거쳐서 群書堂으로 들어갔다. 오다 다른 책사에서 일본 『소년문학집』, 『아쿠타가와집(芥川龍之介集)』, 『요시다(吉田絃三郎)·후지모리(藤森成吉)집』을 사 오다.
29	1931.12.26.	『소년문학집』과 『아쿠타가와집』을 뒤적뒤적 펼쳐보다. 꽤 재미있다.

30	1932.02.22.	낡은 책사로 돌아다니다가 『현대일본문학전집』 몇 권을 사다.
31	1932.03.20.	오후 진고개 文光堂에서 『세계단편소설대집』 불란서편(上), 아메리카편, 북구남구편 3책, 또 다른 데서 노서아편(下), 영국편(下) 2권을 사다. 전자는 매책 80진, 후자는 1원.
32	1932.04.14.	토오쿄오(東京)서 李羲均 군이 『세계단편소설대집』 노서아 편(상), 영국 편(상) 2책을 사 보냈다.
33	1932.04.21.	진고개에서 『세계단편소설대집』(獨輿 篇)을 사 오다.
34	1932.07.02.	진고개를 가다. 『나쓰메 소오세키집』 한 책을 샀다.
35	1932.12.13.	폴로벨의 『接約者』 『성 줄리안 物語』를 읽어 보았다.
36	1932.12.16.	스티븐즈의 『마이크 허임』을 읽다.
37	1933.05.17.	센케비치의 『어둠에 반짝이는 빛』을 번역하였다.
38	1935.07.17.	고골리 작 『대장 부리마』를 읽어보다.
39	1937.01.11.	『수호전』을 읽다.
40	1937.07.04.	모파상의 단편소설을 읽었다. 꽤 재미스럽다.
41	1937.09.10.	『日本書紀』를 읽어보다. 天日槍 전설이 재미스럽다.
42	1937.04.29.	大阪屋에서 『二十五史』 8책을 가져오다.
43	1945.09.12.	『언어학개론』을 읽었다.

이들 양장 책은 대개 20세기 초에 간행된 것으로, 이들 책을 통해 가람이 장르나 종류를 불문하고 신간 서적을 다수 구입해 신학문을 접하고 세계인으로서의 교양을 쌓아나가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고대잡지부’에도 세계문학(일본, 중국 등) 관련 서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 7>(『가람일기』 기록)에서 가람이 사거나 읽었다고 밝힌 세계문학 관련 책들이 『서목』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 추후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 7. 고대잡지부 서적

가람이 깊이 관여했던 문학잡지 『문장』을 비롯해 가람이 다수의 글을 받

표한 잡지와 대학신문, 논문집, 시집, 그리고 각종 교재 및 연구서의 목록이 망라되어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 간행된 단행본과 전공서적까지 포함되어 있다. 책 수가 401편이나 될 정도로 가람 소장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책들이라 할 것이다.

### 1) 『우리말에 쓰인 글자의 찾기 조사』 /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 조사』

1956년에 문교부에서 문화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말의 어휘와 문자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간행한 책이다. 2권 2책으로 되어 있는데, 제1편은 『우리말 말수 사용의 찾기조사(語彙使用頻度調査)』로 1956년 12월에 간행되었다. 그러나 제2편인 『우리말에서 쓰인 글자의 찾기조사』가 오히려 전 해인 1955년 6월에 간행되었다. 빈도순위표는 1951년에 촉탁 위원 7명과 임시직원 128명이 참여해 만든 것으로, 5,648어 221만 8727빈도의 낱말을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정리해 놓았다. 이 조사에 가람이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 2) 『小說資料集成』

『서목』에는 동국대 金根水 교수가 편집한 책이라 했다. 謄寫本으로 1962년에 수도여사래 출판사에서 간행했다. 이 책 내용은 현재 『국문학자료총서 제8집』에 수록되어 있다.

### 3) 기타

『서목』에는 『흐름』(298번)이라는 책이 김동인의 작인 것으로 적고 있으나, 정작 이 작품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 『興亞書報』(150번)는 잡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상세한 자료가 없다. 『서목』에는 가람이 이 잡지를 전체 17권을 갖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이렇듯 『서목』에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장된 자료들이 더러 보인다. 새 자료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서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IV. 『서목』을 통해 본 가람 소장 도서의 의의

### 1. 가람 소장 도서의 문학적 의의

이상 『서목』에 소개된 가람 장서의 전체적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가람 소장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가람 소장 고서 및 당대 간행 국내의 서적은 그의 학문적 성과를 단적으로 기증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목』에 소개된 고서를 살펴보면 가람의 학문적 관심사는 근대식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람이 그 책을 읽거나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별개로 하고, 소장 도서만 놓고 학문 영역을 구획해 보아도 그렇다. 불교학(불경, 월인석보, 각종 불교 관련 서적), 한문학(한시집, 야담집, 개인 문집 등), 역사학(중국 및 국내 역사서), 유학(경서, 각종 유교 관련 서적), 국어학(언해, 문법서, 어휘, 사성통해 등), 지리학(지도, 인문지리지 등), 음악(악보, 가곡보 등), 민속학(조선여속고, 해동세시기 등), 종교학(참동계, 토정비결 등), 의학(향약집성방, 영험약초, 關廬新方 등), 국문학(고전소설, 고전시가, 시조집 등), 사전학(옥편, 강희자전, 辭源 등), 군사(병학지남, 제승방략, 軍門騰錄 등), 농업(농가집성, 감저종식법 등), 수산업(魚譜), 교육학(석봉천자문, 각종 교재), 총서학(백과사전)(類合, 대동운부군옥, 광재물보 등), 서예학(김정희서첩, 고답본 등), 금석학(권공행주대첩비, 조공비명 등), 서지학(解題叢書, 鏤板考 등), 미술학(畫譜, 조선미술사 등), 법학(書法律條, 경국대전, 대명률직해 등), 외국학(서양사강좌, 동양사강좌 등), 세계문학(세계문학전집, 중국문학사 등), 식물학(조선식물명집, 萬物草, 양화소록 등), 조류학(한국조류명집), 금속학(조선금속총람), 여성학(조선역사여류문집, 내훈, 규합총서 등), 외교학(해동제국기, 光海君時代之滿洲關係 등), 건축학(잡지 『건축』 등) 등 그 영역이 실로 다채롭다.

박학다식한 이러한 가람의 학문적 성격을 雜學性이라 폄하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과 학문이 아닌 통합 학문 세계를 지향하면서 기초 학문을 위한 토대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마땅하다. 학문적 성격이 한 가지로 귀결되거나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류준필은 조운제·김태준 등 동시기 국문학 연구자들이 “단일한 (민족)국가’의 단일한 전통을 수립하려는 ‘역사’ 우위의 입장에서 국문학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이병기는 작품의 미적 체험을 우위에 두는 입장에서 국문학 연구에 나아갔다”고 정리하면서 국문학자로서의 가람의 위치를 선명히 드러냄으로써 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sup>19)</sup> 황재문은 이병기 학문의 공과를 살피는 것을 넘어 학문의 유형과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성격을 “工程, 지식을 얻는 학문, 실용성”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sup>20)</sup> 이러한 시도 위에 실증적 자료로서의 『서목』 수록 소장 서적에 관한 연구는 가람의 진면목을 구현해내는 실제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국문학 연구에서 유의미한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가람은 반평생을 고서(고전 및 국학 연구)와 난초(풍류와 예술), 그리고 백목(교육)을 가까이하며 지냈다고 회고한 바 있다.<sup>21)</sup> 이때 고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가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3가지 물건 중 첫째 보물임을 의미한다. 고전문학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겸사인 동시에 진실한 자기 고백이기도 하다. 아직 고전문학 연구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

19) 류준필, 「이병기 국문학 연구의 체계와 특성」, 『한국문학논총』 22, 한국문학회, 1998, 270~303쪽.

20) 황재문, 「가람 이병기 학문의 성격과 문학론」,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6, 한국현대문학회, 2009, 4~15쪽.

21) 이병기, 「고전문학론」, 『문학』 6권3호, 1950.5.1., 138~139쪽. “그러나 이런 역경에 있으면서도 한글 운동을 열렬히 하다가 語學會 사건까지 일어났으나 이건 말글일 뿐이었고 제법 고전문학에까지는 나가지 못하였다. 고전문학은 아직도 막연한 존재다. 나는 해방 후 古典文學의 한 강좌를 맡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고전문학의 한 學人으로서 이를 진실히 연구하려 하는 터이다. 나는 古書와 蘭草와 白墨으로 半生을 보냈다. (중략) 우리 고전문학엔 註解를 한 이가 한 사람이나 있었는가? 약간 한문으로 번역한 건 있으나 우리 말글로는 전연 없었다. 이같이 蕪雜한 材料를 그냥 두고 무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고, 본인 역시 맨 땅에서 학문을 창출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리라. 그렇기에 고전문학 연구는 주해, 곧 ‘날 것’ 투성이인 고전작품을 쉽게 풀어쓰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이 근간이라고 했던 것이다. 원 작품을 해석하고 소개하여 이를 일반국민들이 알고 우리 문화의 장치를 깨닫고 민족의식을 길러내야 할 터인데, 그런 기초 작업을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람 자신이 직접 나섰다고 했다. 실로 고독하고도 지루한, 그러면서 자신의 학문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음에 틀림없다.

가람은 『국문학전사』 「自序」에서 서적 수집과 장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二十적부터 우리 말글에 뜻이 돌아 여러 師友에게 듣고 배우며 한편으로는 이런 書籍들을 정성껏 求하고 모아 곁에 항상 두고 보고픈 대로 뒤적이거나 또는 깨닫고 느낀 바를 적기도 하였다. (중략) 나는 우리말과 글이 담겨 있는 書籍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歷史 地理 風俗 信仰 書誌 美術, 이런 國學에 關한 모든 書籍들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았다. (중략) 나는 나의 살을 에이고 뼈를 깎으면서라도 生命처럼 나의 藏書를 사랑하고 아껴왔다. 그리고 그 속에 묻혀서 사는 보람과 즐거움을 느껴왔던 터이었다. 그러나 나는 死文學을 讚頌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더 살릴 수 있는 生文學을 圖謀하고자 나의 取材와 論旨를 주로 삼았던 바이다.<sup>22)</sup>

20대 초 우리말글 연구에 뜻을 두게 된 시기부터 우리말글을 공부하는 한편, 여러 서적들을 수집한 후 그 자료를 뒤적거리는데 정성을 쏟았다고 했다. 즉 문헌학·고증학을 누구로부터 따로 배운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고서 및 각종 서적을 수집하고 가치를 발견하면서 자신만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해 나갔던 것이다. 국어 관련 서적뿐 아니라 역사, 지리, 풍속, 신앙, 서지, 미술 등 국학 전반에 관한 서적을 망라해 구입한 후, 직접 그 책들과 씨름하며 연구에 진념했다. “살을 에이고 뼈를 깎으면서라도 생명처럼

22) 이병기·백철, 「自序」,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5~6쪽.



나의 장서를 사랑하고 아껴왔다”는 데서 가람이 얼마나 장서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자기 공부와 탐구의 근본으로 삼았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가람은 고서와 각종 문헌 자체를 존중한 것에 머물지 않았다. 그런 고서와 고적이 당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문하며 현재를 살리는 生文學으로서 고전문학과 국학 서적을 자신의 연구 재재와 논지로 삼고자 했다는 사실이 소중하다.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여는 문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들이라는 자각과 함께 사명감 또한 남달랐다. 가람은 자신이 수십 년간 모아온 장서에서 학문적 꽃을 피웠던 것이다. 고전문학사 서술의 동력 역시 바로 고서 및 문헌에 대한 이해와 1차 원자료에 대한 분석과 탐구에 있었었다. 가람의 학문적 결실을 『국문학전사』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문학전사』의 공저자이자 현대문학사 편 서술을 맡았던 백철 역시 가람이 일찍부터 諸 분야의 서적을 구하고, 장서에 심혈을 기울여왔음을 밝혔거니와 가람이 쓴 ‘고전문학사’와 ‘국한문학사’ 편이 “秘藏했던 貴重한 資料”를 제시한 것이 독자적인 부분이라고 평가<sup>23)</sup>한 것도 가람 소장본에 기초한 문학사 서술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기존 연구에서 『국문학전사』의 실제 서술 내용과 제시된 작품들의 상당수가 가람이 이전에 자신의 소장 서적을 정리, 소개한 「조선어문학명저해제」(1940)와 「한국명저해제」(1958)의 내용을 적극 활용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미 밝힌 바 있거니와<sup>24)</sup> 『서목』은 이 두 편의 명저해제에서 각각 다른 239종과 496종의 서적을 훨씬 뛰어넘는 1,441종의 소장 서적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서목』 소개 서적과 『국문학전사』의 거리를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조선어문학명저해제」에서 인쇄류와 한글본 서적만을 다루었다면, 「한국명저해제」에

23) 이병기·백철, 「餘白에 쓰는 말」,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556~557쪽. “또한 가지 이 全史의 長點을 말하고 싶은 것은 特히 古典文學史部와 國漢文學史篇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람 先生이 秘藏했던 貴重한 資料를 많이 提示한 點인데 이것은 다른 著書가 追從할 수 없는 獨自의 面이며 讀者는 여기에서 크게 느끼고 얻을 것이 많을 것이다.”

24) 이민희, 「가람 이병기와 서지학」, 『애산학보』 40, 애산학회, 2014, 239~257쪽.

서는 한글본 외에 한문본(경사자집부와 문학 서적)까지 아우르고 있다. 그런데 『서목』(1963)에 이르면 더욱 그 외연이 넓어져, 그 밖의 서적들, 곧 외국 서적과 탐본류, 잡지 및 1900년대 단행본까지 모두 다루고 있다. 따라서 『국문학전사』 집필(1957) 시까지 가람이 섭렵했던 각종 서적의 윤곽을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목』과 『국문학전사』는 가람의 서지적 식견과 고전문학연구 능력이 정점을 찍었을 때의 역량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

## 2. 『서목』과 『일사가람문고 고서저자목록』의 서지학적 의의

『서목』은 가람 소장본의 실체를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자료다. 국학 연구를 위한 1차 자료의 보고인 동시에 가람 학문 세계 이해를 위한 첩경이다. 그 윤곽을 파악했다면, 실제 연구자들이 그 자료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며, 아직 사장되어 있는 고서를 찾아내 연구로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람이 독서하고 연구한 자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피는 작업도 대단히 중요하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어문학명저해제」와 「한국명저해제」, 그리고 『국문학전사』에서 활용된 서지적 자료와 정보를 『서목』과 접목해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비교, 대조, 분석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가람일기』에서도 가람이 서지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고 어떤 서적 수집과 독서 활동을 해 왔는지를 여실히 살필 수 있다.<sup>25)</sup> 따라서 『서목』과 『가람일기』, 그리고 명저 해제 글과 『국문학전사』 등에 등장하는 고서와 각종 1차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민영이 『가람일기』 기록과 『가람문고』 소장 서적과의 관계를 밝히는 논의를 전개한 바 있지만<sup>26)</sup>, 『서목』과 『가람문고 목록』 고서와의 대비와 관련한

25) 이민희, 「서지학자로서의 嘉藍 李秉岐 연구 : <가람일기>에 나타난 고서 수집 및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193~227쪽. 이에 서 더 나아가 이제는 『서목』과 『가람일기』 내용과의 직접적인 비교 논의가 필요하다.

26) 이민영,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와 가람문고 연구」, 『가람 이병기와 그의 시대

논의는 여전히 갈증이 많다. 왜냐하면 『가람문고 목록』(1966)과의 비교를 통해 『서목』의 서지학적 위상을 직간접적으로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7)</sup>

『가람문고 목록』은 국어학자였던 一叢 方鍾鉉의 개인 소장본을 가람 소장본과 포함해 1책으로 만든 것이다. 여기에 실제로 수록된 『가람문고 목록』 서적은 총 693종이다. 가람 『서목』에 기록된 1441종에 비해 약 1/2에 해당하는 숫자다. 『가람문고 목록』과 『서목』 서적 목록을 일일이 대별해 본 결과,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서목』은 가람 소장본을 주제별(귀중본/희귀본, 경사자집부, 양장본, 답본 등)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가람문고』는 서명과 작자명을 뒤섞은 채 가나다순으로 일괄 정리되어 있다. 『서목』이 가람과 제자들이 책의 내용과 가치, 시기를 고려해 주제적 측면에서 체계화한 것이라면, 『가람문고 목록』은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정리한 것이라 그 역할과 의미가 다르다.

둘째, 『서목』의 종수(1441종)와 『가람문고 목록』 종수(693종)의 차이가 현저한 이유는 『가람문고 목록』에는 고서 목록만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즉 『서목』의 ‘중화민국 고서적부’ 101종과 ‘양장책부’의 121종, 그리고 ‘고대 잡지부’의 401종에 해당하는 서적 목록은 『가람문고 목록』에 빠져 있다. 『가람문고 목록』은 근대 이전의 국내 고서만을 위주로 선별해 제시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가람 소장본의 실체와 가람의 학문 세계를 보다 정확히 살필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서목』임을 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가람문고 목록』은 저자명과 서명이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서울대도서관 소장 가람 소장본 목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책의 형태(판본), 冊數와 張數, 크기 등 서지 사항이 비교적 소상히 제시되어 있다.

---

』, 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주관 발표논문집, 2013, 14~15쪽. 이민영에 의하면, 서울대 가람문고에는 경부 61종, 사부 179종, 자부 206종, 집부 246종, 총 702종의 서적이 있는데, 『가람일기』에 언급된 서적 중 가람문고에 동일 서적명으로 존재하는 것은 약 150여 종이 된다.

27) 현재 가람전집 간행위원회에서 간행 예정인 『가람전집』(전 30권)에는 『서목』과 『가람문고 목록』이 한 권의 책에 함께 수록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집에 수록되는 『가람문고 목록』은 일사 소장본 목록은 빼고 가람문고 소장 도서목록만을 추린 것이다.

반면, 『서목』은 소장본 전체를 책의 가치와 성격 위주로 주제별로 분류한 것이 장점이다. 특별히 귀증본과 희귀본의 경우 왜 그것이 귀중한지 비고란에 요약적으로 밝혀 놓았다.(예를 들어, 고려 중기 간행 판본이다. 태종 계미字 판본이다 등등) 이로 보더라도 가람 소장본 서적 연구를 위해서는 『서목』과 『가람문고』 기록 서지사항을 비교,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가람문고 목록』과 달리 『서목』에는 고서 외에 가람이 평소 관심 갖고 읽고 공부했던 서적까지 모두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가람의 학문적 관심사와 분야, 그리고 각종 가람 저작물(평론, 주해서, 교재 등)의 원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람문고목록』보다 『서목』이 훨씬 더 자료 활용 가치가 높다 하겠다.

## V. 나오며

이상 『서목』 수록 고서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초기 국학자였던 가람은 인문학과 서지학, 문헌학을 접목한 국학을 창출해 낸 첫 번째 연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목』은 국문학자이자 국학자이면서 서지학자일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가람을 당당히 평가하고 그의 학문 세계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서목』 수록 가람 소장본 서적들의 의의와 활용 방향에 관해 다시 정리해 언급하는 것으로 본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서목』 중 ‘귀증본서목’과 ‘희귀본서목’에 기록된 고서들의 문학적, 사료적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람은 이들 서적에 대한 개괄적 평가와 소개를 『한국명저해제』에서도 일부 시도한 바 있거니와 거기에 누락된 서적까지 포함해 향후 『서목』 수록 각 편에 대한 전수 검토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가람의 서지적 안목과 국학 연구자로서의 자질, 그리고 자료 발굴의 가치까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통도서목’으로 설정된 ‘경사·자·집부’, 그리고 ‘잡서·탐본·류부’ 서적들을 일별했을 때, 가람의 학문적 토대가 전통 학문 세계와 긴밀히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경과 유교 경서, 개인 문집과 소설 책 및 야담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기초해 가람 독서의 성격을 上下 및 聖俗의 지식 체계를 아우르는 ‘잡학성과 소통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특별 서목’ 또는 ‘기타 서목’으로 성격 규정을 지을 법한 ‘중화민국 고서적부’와 ‘양장책부’, 그리고 ‘고대잡지부’ 서적들을 통해 ‘동양과 서양[東西]’, ‘안과 밖[內外]’, 그리고 ‘지금 현재[現今]’의 문학 활동과 학문 세계를 적극 수용하고자 했던 가람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정신세계와 사상적 기반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개방성’과 ‘도전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람 소장본의 성격을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인상 비평에 불과하다. 후속 연구에서 서지학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가람학 논의를 개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를 위해 『서목』의 체계와 성격, 그 의미를 거칠게 보여주고자 한 시도에 해당한다.

넷째, 가람 소장본은 서지학뿐만 아니라 고전문학, 불교학 등 제 분야 연구를 위한 1차적 자료로 매우 가치가 높다. 『서목』이야말로 가람을 국문학자요 서지학자로 재평가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다섯째, 『서목』 수록 서적 중 아직 제대로 그 자료들의 진면목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많다. 향후 국학 연구의 재점검,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목』 서지 정보에 대한 추가 연구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목』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도 더러 보인다. 사장되었거나 묻혀 있는 자료를 찾아낼 때 국학 연구의 편폭과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서목』은 가람의 학문 세계로 들어가는 첩경이자 국학 연구를 위한 보물창고와 같다.

가람이 소장했던 서적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국문학 및 국학 연구의 토대가 대단히 넓어지고 풍성해졌지만, 앞으로 해야 할 과제 또한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속살을 찾아내는 책무는 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다.

※ 이 논문은 2018년 1월 2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2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동아일보』 1963년 5월 31일자.

이병기, 「고전문학론」, 『문학』 6권3호, 1950.5.1., 138~139쪽.

이병기백철, 「自序」,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5~6쪽.

『정조실록』, 20년(1796) 12월 15일조.

김영배, 「康有爲 <廣藝舟雙楫>의 書藝美學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동양미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2.

남정희, 「가람 이병기의 여성문학과 여성관」, 『우리문학연구』 45, 우리문학회, 2015, 35~64쪽.

董越, 윤호진 역, 『朝鮮賦』, 도서출판 까치, 1994.

류준필, 「이병기 국문학 연구의 체계와 특성」, 『한국문학논총』 22, 한국문학회, 1998, 270~303쪽.

안병희, 「<진람> 해제」, 『서지학보』 25, 한국서지학회, 2001, 219~304쪽.

윤석민, 「가람 이병기의 어문 운동과 어문 연구」, 『애산학보』 40, 애산학회, 173~214쪽.

이경애, 「가람 이병기의 판소리문학 연구」, 『판소리연구』 40, 판소리학회, 2015, 73~113쪽.

이경애, 「<가람 이병기 전집> 간행을 위한 자료 정리 및 가람학 정립의 방향 연구」, 『국어문학』 64, 국어문학회, 2017, 243~279쪽.

이민영, 「서지학자로서의 가람 이병기와 가람문고 연구」, 『가람 이병기와 그의 시대』, 서울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주관 발표논문집, 2013, 14~15쪽.

이민희, 「서지학자로서의 嘉藍 李秉岐 연구: <가람일기>에 나타난 고서 수집 및 거래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 193~227쪽.

이민희, 「가람 이병기와 서지학」, 『애산학보』 40, 애산학회, 2014, 215~262쪽.

이민희, 「嘉藍 李秉岐 저작물에 관한 기초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58, 민족문화사연구소, 2016, 405~457쪽.

이민희, 「교육자로서의 嘉藍 李秉岐에 관한 종합적 고찰」, 『열상고전연구』 55,

- 열상고전연구회, 2017, 99~138쪽.
- 이현희, 「언해자료 <杜律分類>와 <杜草堂詩>에 대한 고찰」, 『규장각』 2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19~31쪽.
- 이형대, 「가람 이병기와 국학」, 『민족문화사연구』 10, 민족문화사학회, 1997, 345~386쪽.
- 정명기, 「<浮談>의 발견과 패설사적 의의」, 『열상고전연구』 38, 열상고전연구회, 2013, 169~202쪽.
- 조은별, 「가람 이병기의 신재효 연구와 신재효 위상의 확립」, 『한민족문화연구』 60, 한민족문화학회, 2017, 193~221쪽.
- 조 식, 오이환 역, 『南冥先生文集』, 지만지, 2009.
- 최원식, 「고전비평의 탄생: 가람 이병기의 문학사적, 지성사적 위치」, 『민족문화사연구』 49, 민족문화사학회, 66~81쪽.
- 황재문, 「가람 이병기 학문의 성격과 문학론」,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6, 한국현대문학회, 2009, 4~15쪽.



Abstract

A Study on *Seomok*(書目) List of Collected Books  
by Garam(嘉藍) Lee Byong-gi(李秉岐)

Lee, Min-Heui

The early national scholar Garam(嘉藍) Lee, Byong-gi(李秉岐) is a man who has laid the foundation of research on Korean studies by combining humanities, bibliographies, and literature. A total of 1,441 kinds of books are listed in the *Seomok*(書目)(1963), which is a collection of books in the book of Garam, which he collected for life and used as a study of classical literature, with the help of his disciples at the end of the year. *Seomok* is not only detailed about the types of books(manuscripts, woodblocks, and prints), but also contains publications, authors, and unique bibliographical information. In addition, unlike any book list system, it is subdivided into 'precious book', 'rare book', 'general book', 'Chinese books', 'western style books' and 'previous magazines'. This shows that Garam's interests and the academic world are so wide and diverse.

When we look at the period of publishing, many of the woodblocks published in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are included in the precious and rare books, and the books after the imperial period are usually 'general books' and 'rubbish type books'. And books from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re distributed in the 'Chinese books of ancient times', 'western style books', and 'past magazines'. According to the

editions, the printed books account for half of all the books in the collection.

Among the books belonging to Garam, more than 7% of the total books and book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e overbooked. Garam was interested in the books published in China in the 20th century, and I think that such books had some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his intellectual foundation.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1,441 species in the *Seomok* and the number of Garam's donated books(693 species in the libra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because the book list of the collection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xcept the early 20th century books was made. Therefore, in order to more accurately examine the reality of the book of Garam and the academic world of him,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he *Seomok*.

*Seomok* is a path to go to Garam's academic world, and it is also a crucial evidence to re-evaluate Garam as a scholar of national literature and bibliographer.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Seomok* is a treasure house of Korean studies.

**key words**

*Seomok*[書目, Collected book list], Garam(嘉藍) Lee Byung-gi(李秉岐), Bibliographer, Precious book, Rare book